

劉完素的方劑學說 및 臨床經驗에 관한 研究

- 『黃帝素問宣明論方』을 中心으로 -

東洋堂韓醫院·東國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大邱韓醫大學校 原典醫史學教室
鄭城采·蔣喜旭·金基郁·朴炫局·李丙旭

關於劉完素的方劑學說及臨床經驗的研究

—『黃帝素問宣明論方』爲核心—

東洋堂韓醫院·東國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大邱韓醫大學校 原典醫史學教室
鄭城采·蔣喜旭·金基郁·朴炫局·李丙旭

金元四大家的泰斗劉完素，1110年生於河北省河間縣，卒於1200年，享年90歲。他通過研究『黃帝內經』和『傷寒論』，著述了『素問玄機原病式』，『黃帝素問宣明論方』，『素問病機氣宜保命集』，『傷寒標本心法類萃』，『傷寒直格論』等著作。另外，應用運氣對理論進行研究，主張‘火熱論’，提出以寒涼藥物治療疾病的方法，使金元時代在醫學上，形成了百家爭鳴的局面。筆者通過對劉完素的方劑學說及臨床經驗的研究，得出如下結論：

在方劑學說上，『黃帝素問宣明論方』中，其使用的『傷寒論』和各家及其弟子們運用方劑，共包括366個。大部分主張了利用辛苦的寒藥，來開通鬱結，燥濕除熱。‘常服保養’是因爲與其所居住的中國北方，氣候乾燥，人們多食濕性強，且較慳悍的食物，所以有使人體腸胃秘燥的傾向。『黃帝素問宣明論方』的366個方中，有散劑126個，湯劑87個，其中，只有18個方可稱之爲真正的湯劑，其餘都接近爲煮散。『黃帝素問宣明論方』中所羅列的主要方劑有‘防風通聖散’，‘三花神佑丸’，‘雙解散’，‘三一承氣湯’，‘大金花丸’，‘益元散’，‘大建中湯’，‘當歸龍膽丸’，‘秘方茶酒調散’，‘桂苓甘露散’，‘川芎石膏湯’，‘全聖散’，‘地榆湯’，‘人參散’，‘芍藥湯’，‘內疏黃連湯’，‘神芎丸’，‘倒換散’等。

在臨床經驗上，劉氏有豐富治療經驗，但是遺憾的是沒有傳下一部關於醫案方面的著作。在疾病的治療上，可看出其有獨創的見解，這一點都見于『素問玄機原病式』等理論著作，尤其散見於『黃帝素問宣明論方』中。

關鍵詞：劉完素，方劑學說，臨床經驗，『黃帝素問宣明論方』

I. 緒論

“儒之門戶分于宋，醫之門戶分于金元”¹⁾이라 하

여 금원시기는 동양의학사에 있어서 이론뿐만 아니라 임상적으로 획기적인 분기점이 되어 明清시기 내지는 오늘날까지 영향을 끼쳤다. “張, 劉, 李, 朱 金元四大家也. 張謂戴人”²⁾이라 규정한 금

* 交信著者：金基郁，東國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054-770-2664, kkw@dongguk.ac.kr

1) 『四庫全書總目·子部·醫家類』：中華書局，1964, p. 856.

2) 陸九芝：『世補齋醫書』卷十六『下工語屑』『陸懋修醫學全書』，中國中醫藥出版社，1999, p. 121.

원사대가는 탄생에서부터 발전에 이르기까지 개혁, 창조, 논쟁으로 시종일관한 새로운 학풍을 조성하였다.

이들이 탄생한 배경은 시대적, 환경적인 요인이 있었고, 의식형태와 학술영역에서 이론을 추구한 풍조에 영향을 받았으며, 역사적으로 누적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새로움을 추구하였고, 의학발전의 필요에 의한 것이었다.

이들 가운데 첫 번째이면서 河間學派³⁾ 창시자인 劉完素(1110~1200년)는 字가 守眞이고 自號는 通玄處士이며, 河北河間 사람이기 때문에 河間이라 부르고 대표작으로는 『素問玄機原病式』, 『素問病機氣宜保命集』, 『黃帝素問宣明論方』 등이 있다.

宋代 정부에서는 藥材, 製劑의 관리와 경영업무를 전담하는 和劑局을 설립하고, 陳師文 등이 칙령을 받들어 『太平惠民和劑局方』(이하 『局方』)으로 간칭함) 10권을 편찬하였다. 처방의 숫자가 많지 않지만 모두 명의들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치료 효과가 긍정적이다. 이 때문에 局方이 세상에 성행하게 되어 '以方試病'의 풍조가 조성되자 朱丹溪는 “今乃集前人已效之方, 應今人無限之病, 何異刻舟救劍, 按圖索驥, 冀其偶然中, 難矣!”⁴⁾라 비판하였다. 또한 『局方』의 용약이 대부분 溫燥에 치우쳤기 때문에 당시 溫熱病이나 陽盛陰虛한 체질에 대해 치료효과가 좋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도리어 각종 폐단이 나타나게 되었다.

河間이 살았던 지역인 중국 북방은 風土가 메마르고 사람들이 타고난 체질이 강하며, 음식물과 진한 술로 인하여 溫熱이 쌓이기가 쉬웠다. 그리고 宋과 金의 전쟁으로 인하여 사회가 불안

하고 疫病이 창궐하였기 때문에 『局方』의 溫熱한 약물을 응용하기에 적절하지 못하였다. 이 외에 송대에는 新儒學과 運氣學이 성행하였고 아울러 송대 상한가인 韓祗和, 龐安時, 朱肱 등이 영향을 끼쳤다.

劉氏는 『黃帝內經』 七篇大論의 '病機19條'를 발휘시켜 '火熱論'의 관점을 제시하였는데, 당시 溫燥藥을 善用한 습관에 반하여 寒涼한 약물로 抑陽瀉火시켜 독립된 학파를 형성하게 되어 후세에 '寒涼派'라 칭하게 되었다. 따라서 논자는 劉完素에 관련된 연구들⁵⁾을 바탕으로 『黃帝素問宣明論方』을 통한 劉氏의 方劑學說 및 임상경험에 관하여 정리하여 보고하는 바이다.

II. 本 論

1. 『黃帝素問宣明論方』의 提要, 版本, 評價

1) 내용 개요⁶⁾

『황제소문선명론방』은 모두 15권으로 『내경』의 病證, 方治를 발휘한 저작이다. 金·大定12년(1172년)에 완성되었다.

권1, 권2는 '諸證門'으로 『소문』에 수록된 煎厥, 薄厥, 飧泄, 臍脹과 諸痺, 心痛 등과 같은 61가지 병증을 滙集하였다. 조문에 따라 분석, 정리하고, 각 증에 대한 처방을 붙였고 仲景을 따른 것이 많다.

권3에서 권15까지는 風, 熱, 傷寒, 積聚, 水濕, 痰飲, 勞, 燥, 泄痢, 婦人, 補養, 諸痛, 痔瘻, 瘧疾, 眼目, 小兒, 雜病 등 17門으로 나누어져 있다. 門마다 총론이 있고 『소문』에 관련된 원문을 먼저 인용하였다. 그리고 내용을 증보하고 발휘시켰는데, 주로 運氣造化와 자연의 이치를 밝혔다. 또한 諸家의 理法과 辨證方論을 덧붙인 다음에 치료

3) 王綸: 『明醫雜著』 『仲景東垣河間丹溪諸書孰優』, 江蘇科學技術出版社, 1981, p. 2.

謝利恒: 『中國醫學源流論』 『劉河間學派』, 澄齋醫社排印本三版 (中國自然科學研究所圖書館所藏), 1936, pp. 16-17. 明代 王綸은 『明醫雜著』에서 처음으로 “外感法仲景, 內傷法東垣, 熱病用河間, 雜病用丹溪”이라 하였고, 훗날 李仲梓 등이 이를 따랐다. 謝利恒은 『中國醫學源流論』에서 ‘河間學派’를 제시하여 “及劉河間出, 而新說大盛, 河間撰素問玄機原病式一卷, 闡明六氣皆從火化之理. 又撰宣明論方三卷, 其用藥多主寒涼 ……”이라 하였다.

4) 朱震亨: 『局方發揮』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中國中醫藥出版社, 1977, p. 667.

5) 徐岩春 외1인: 『倡火熱論의劉完素』, 中國科學技術出版社, 1989. 劉祖貽 외123인: 『中國歷代名醫名述』, 中國古籍出版社, 2002. 劉星 외33인: 『中醫各家學說』, 科學出版社, 2001. 嚴世藝 외8인: 『中醫各家學說』, 中國中醫藥出版社, 2003. 虛健鵬 외1인: 『中國古代名醫點評』, 中國醫藥科學出版社, 2000.

6) 前掲書: 『中國歷代名醫名述』, pp. 350-351.

원칙과 方藥을 판정하였다. 처방은 대부분 '降火益陰'의 방식을 취하였고, 寒涼한 성질의 약물을 많이 사용하였다.

이 책은 『내경』이론을 기초하여 '火熱'의 病機를 밝히고, '寒涼'의 治則을 확립하였다. 아울러 傷寒, 雜病의 辨證論治에 구체적으로 운용함에 있어서 『素問玄機原病式』과 서로 호응하고 있어 河間의 '熱論'에 있어 쌍벽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2) 주요 판본

『황제소문선명론방』의 현존하는 주요 판본은 다음과 같다⁷⁾⁸⁾.

- ① 元 刻本 (卷一, 卷二, 卷六부터 卷十까지 殘存하고 있다)
- ② 明 宣德6년(1431년) 刻本
- ③ 明 正統年間 熊宗立校刻本
- ④ 明 萬曆13년(1585년) 金陵吳謙刻本
- ⑤ 明 萬曆29년(1601년) 吳勉學校刻古今醫統正脈全書本
- ⑥ 日本 元文5년(1740년) 皇都 書鋪植村右衛門 刻本
- ⑦ 清 光緒33년(1907년) 京師醫局刻古今醫統正脈全書本
- ⑧ 清 宣統元年(1909년) 上海 千頃堂書局 石印本 (즉 劉河間傷寒三書本)
- ⑨ 三朝名醫方論에 나타난다.

3) 고금의 평가

- ① 『四庫全書總目提要』의 평가⁹⁾

이 책은 병에 대한 처방의 법으로 먼저 諸證門은 煎厥, 薄厥, 飧泄, 臌脹에서 諸痺心痛까지 모두 61證으로 모두 『內經』의 諸篇에서 채용하고

證마다 각기 주치의 방을 두었으며 한결같이 仲景을 따랐다. 차례로 諸風, 熱, 傷寒, 積聚, 水濕, 痰飲, 勞를 배열하였고 용약은 한량하고 汗, 吐, 下 3법이 대부분으로 당시에는 이의가 많았기 때문에 책 속에 이를 변론한 곳이 많다.

② 今鑒¹⁰⁾

『宣明論方』의 용약에서 잠병의 치료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寒涼한 것만 쓰지 않고 攻補를 겸하고 寒熱을 병용하였다. 유씨는 중경을 계승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경의 학문을 발전시키기도 하여 寒涼의 문호를 열어 辛熱하고 溫燥에 치우친 『局方』의 폐단을 피하였다.

2. 方劑學說

1) 方藥의 용량과 용법

河間은 양기가 拂鬱하고 육기가 대부분 火로 화하는 것을 중시하였다. 치료를 논할 때에는辛苦한 寒藥을 이용하여 鬱結을 개통시키고 燥濕除熱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특징을 王好古는 "務在推陳致新, 不使少有拂鬱, 正造化新新不停之義. 醫而不知此, 是無術也"¹¹⁾라 지적하였다. 그러나 깊은 연구가 없거나 유씨의 진정한 뜻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寒涼함이 과하다고 비난하기도 하였는데, 특히 張景岳이 심하여 劉河間 등이 "動輒言火, 莫可解救, 多致伐人生氣, 敗人元陽, 殺人于冥冥之中"¹²⁾이라 하였다. 장경약의 이러한 견해는 치우친 감이 없지 않다. 유씨 방약의 용량과 용법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1) 대표적인 방제의 분석

유하간 방약의 용량과 용법이 상당히 특징이 있어 임상에서 어떻게 처리하였는지,辛苦한 寒藥 또한 어떻게 구체적으로 운용하였는지를 검토

7) 嚴世藝 외22人 : 『中國醫籍通考』, 上海中醫藥出版社, 1990, p. 54.

8) 前掲書 : 『倡火熱論의 劉完素』, pp. 4-5.

9) 前掲書 : 『四庫全書總目·子部·醫家類』 『宣明論方』, pp. 868-867. "是書皆對病處方之法, 首諸證文, 自煎厥, 薄厥, 飧泄, 臌脹以及諸痺心痛凡61證, 皆採用 『內經』 諸篇, 每證各有主治之方, 一宗仲景, 次諸風, 次熱, 次傷寒, 次積聚, 次水濕, 次痰飲, 次勞, 用藥寒涼, 及汗, 吐, 下三法, 當時多異議, 故書中辯論之處爲多."

10) 前掲書 : 『中國歷代名醫名述』, p. 351.

11) 王好古 著·曹炳章 編 : 『此事難知』 『中國醫學大成續編』 卷五, 岳麓書社,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0, p. 332.

12) 張介賓 : 『景岳全書』 『傳忠錄下·辨河間共九條』 『張景岳醫學全書』,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 910.

해보면 그에 대해 이해할 수 있고 객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宣明論方』을 예로 들어 분석해보기로 한다.

이 책에는 모두 366방이 있는데 여기에는 그가 운용한 『상한론』과 여러 名家와 그의 제자들이 운용한 방제가 포함되어 있다. 육기병 가운데 대표성이 있고 임상에서 상용된 몇몇 名方을 골라 그 사용된 정황을 보면 대부분 危險한 것들이다.

예를 들어 ‘防風通聖散’¹³⁾은 여러 風熱을 通治한다. 약물은 모두 17가지이고 총량은 13냥2돈5푼이다. 그 중에 苦寒한 약이 4가지로 大黃, 連翹, 黃芩, 梔子가 모두 2냥2돈5푼이고, 鹹寒한 약이 1가지로 芒硝 반냥이고, 甘寒하고 辛寒한 약이 2가지로 滑石, 石膏가 4냥으로 모두 6냥7돈5푼이다. 한량한 약이 반을 훨씬 넘고, 苦寒한 약은 17/100에 불과하다. 복용하는 용량은 2돈이고 하루에 2회 모두 4돈으로 한량한 약이 2돈 약간 넘고 苦寒한 약은 몇 푼에 불과하다. 『保命論』에서 이것으로 中風을 치료할 때에는 약의 양이 비교적 많아 1냥을 복용하고 하루에 2회 모두 2냥이다. 그 중에 한량한 약이 1냥 조금 넘고 苦寒한 약은 3돈4푼 남짓하다. 이와 같은 용약은 오늘날 임상에서 상용하는 한량한 약의 일반적인 용량에 비해 밀돈다. ‘川芎石膏湯’¹⁴⁾은 앞의 방과 비교하면 風熱을 제거하는 작용이 더욱 크지만 총 劑量에 있어서 甘寒한 涼藥 3량이 가중되어 있고 苦寒한 약은 겨우 2돈5푼이 증가되어 있다. 하루 용량은 앞의 방과 같고 한량한 약의 용량 역시 비슷하다.

‘神芎丸’¹⁵⁾은 除熱시키는 주방으로 寒涼之劑를 중용하였다. 총 중량은 13냥반이다. 苦寒한 약은 4가지로 大黃, 黃芩, 牽牛가 모두 8냥이고 黃連이 반냥으로 2/3가 약간 못되며, 甘寒한 약은 滑石 4

냥 1가지이고, 辛涼한 약이 薄荷 반냥 1가지로 1/3을 점하고 있으며, 辛溫한 약이 1가지로 天궁 반냥으로 3/10을 차지한다. 용법과 용량은 물을 조금씩 떨어뜨려 丸을 팔알 크기로 만들어 온수에 10~15환을 복용하고 복용할 때마다 10丸을 가하여 하루에 세 번 복용한다. 가장 많이 계산하면 하루에 65환 복용한다. 일반적으로 팔알 크기의 환약은 1돈에 40환 정도로 하루에 65환 복용할 경우 1돈 5~6푼에 불과하고 많아야 2돈을 초과하지 않는다. 오늘날 계산하면 6~7g에 불과하다. 이러한 용량은 大黃, 牽牛의 약성이 상당히 맹렬하지만 瀉火시키는 작용은 사람을 상하게 할 정도까지는 못된다.

‘大金花丸’¹⁶⁾은 苦寒으로 火를 바로 꺾는다. 黃芩, 梔子, 黃柏, 大黃이 같은 양이고 용법과 용량 역시 水丸으로 小豆大이며 한번에 2, 30환을 복용한다. 하루에 몇 차례 복용하는지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하루에 2~3번 복용하는 것으로 계산하면 하루의 총량은 60~90환 정도로 모두 1돈5푼에서 2돈3푼에 이른다.

이와 비슷한 것으로 ‘黃連解毒湯’¹⁷⁾이 있는데, 黃連, 黃柏, 梔子, 黃芩이 같은 양이다. 용법과 용량은 탕제로 만들어 하루에 한번 복용하는데 5돈이다. 매 약의 하루 용량은 평균 1돈2푼5리에 불과하다. 오늘날 계산법으로는 4~5g으로 역시 중등 이하의 용량이다. 이 두 방은 苦寒劑 가운데 가장 중한 것으로 火熱의 重證을 淸瀉시키는데 운용한다.

傷寒熱病을 解利시키는 ‘雙解散’¹⁸⁾은 ‘防風通聖散’과 ‘益元散’이 등분된 것으로 寒涼한 약이 가중되어 있고 苦寒한 약은 상대적으로 경감되어 있다. 그 용량은 매번 3돈 복용한다고 되어 있지만 하루에 몇 차례 복용하는지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루에 2~3번 복용하는 것으로 계산하면 하루의 총량은 6돈에서 9돈이 된다. 오늘날 계량법으로는 많게는 20~30g에 불과하며 일반 해표약

13) 劉完素：『黃帝素問宣明論方』卷三『風門·諸風總論』『金元四大家醫學全書』上，天津科學技術出版社，1992，p. 58. “防風通聖散：防風 川芎 當歸 芍藥 大黃 薄荷葉 麻黃 連翹 芒硝 이상 각 半兩，石膏 黃芩 桔梗 各 1兩，滑石 3兩 甘草 2兩 荊芥 白朮 梔子 各 1分. 이상을 분말하여 매번 2돈 복용한다.”

14) 上揭書：『風門·藥證方』，p. 59.

15) 上揭書：『熱門·藥證方』，p. 62.

16) 上揭書：『熱門·藥證方』，p. 64.

17) 上揭書：『傷寒門·傷寒方』，p. 70.

18) 上揭書：『傷寒門·傷寒方』，p. 71.

의 한첩 분량에도 미치지 못한다.

청열제인 '白虎湯'¹⁹⁾은 石膏의 용량이 4량, 知母, 甘草 각 1냥에 粳米를 가하여 총량이 4냥 1흡이지만 구체적으로 응용할 때에는 매번 5돈을 복용하고 하루에 3, 4번 복용하면 1냥5돈에서 2냥에 이른다. 이러한 劑量은 『상한론』의 용량에 비해 훨씬 가볍고 현재 임상에 운용되는 용량에 비해서도 가볍고 적다.

瀉下劑인 '三一承氣湯'²⁰⁾은 大, 小, 調胃承氣湯의 작용이 있어 大黃, 芒硝, 厚朴, 枳實이 각 반냥이고 炙甘草가 1냥이다. 方의 총량이 3냥이고 두 번 나누어 복용하며 한 첩이 1냥5돈이다. 그 용량은 『상한론』3개 承氣湯의 어떠한 방에 비교해보아도 가볍고 현재 응용하는 承氣法에 비해 일반 용량 이하이다.

'三花神佑丸'²¹⁾은 清熱泄濕한다. 약물은 大黃, 牽牛, 甘遂, 大戟, 芫花, 輕粉으로 구성되어 있어 下劑 가운데 가장 중한 것이라 말할 수 있지만 총 중량은 4량6돈이고 처음 복용하는 양은 小豆 大 5丸이고, 매번 복용할 때 5환을 추가하며 하루에 세 번 복용하는데 모두 25환 약 6, 7푼이다. 오늘날 계산으로는 2g 남짓하다.

이 밖에 '人參白朮湯'²²⁾으로 소갈을 치료한다. 燥와 火熱을 겁하기 때문에 주로 한량한 약을 사용한다. 약은 22가지이고 총량은 26냥2돈5푼으로 그 중에 한량한 약이 19냥으로 72/100를 차지하고, 고한한 약은 知母, 梔子, 連翹, 大黃으로 모두 2냥반으로 총량의 0.9를 점한다. 이를 분말로 만들어 매번 5돈을 복용하고 점차 10여 돈까지 가한다. 하루에 복용하는 한량한 약은 7, 8돈에 불과하고 고한한 약은 1돈에도 미치지 못한다.

위에서 든 예는 전반적인 면을 대표할 수는 없지만 河間 藥약의 대략을 알 수 있다. 寒涼을 숭상한 것은 병세의 필요에 의한 것이지만 용량이 가볍고 용법에 신중을 기하였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특징에 대해 사람들마다 인식이 소홀하였다. 실제로 그는 오직 寒涼으로 攻伐하는 이론을 펼친 것이 아니라 약물의 작용을 잘 알고 또한 脾胃를 고려하기도 하였다. 張景岳의 용약과 비교해보면 그는 溫補를 주장하고 한량한 것을 매우 싫어하였지만, 『新方八陣』에서 寒陣과 攻陣 가운데 苦寒攻伐藥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예를 들면 寒陣에서 '抽薪飲'²³⁾, '徒薪飲'²⁴⁾, '化飲煎'²⁵⁾, '太清飲'²⁶⁾이, 攻陣에서 '百順丸'²⁷⁾ 등이 있는데 黃芩, 木通, 梔子, 黃柏, 龍膽草, 黃連, 大黃, 知母, 石膏 등을 이용하였고, 일반적인 용량은 1-2돈에서 3돈에 이르며 石膏는 5~7돈에 이른다. 용법은 대부분 탕제로 매일 한번 복용한다. 그 중에 고한한 약은 최소 하루에 3~4돈 많게는 8~9돈에 이른다. 하간이 사용한 寒涼한 약에 비하면 많은 것이지 결코 모자라지 않는다.

(2) '常服保養'의 정확한 이해

이 밖에 유씨가 종종 사람들의 공격을 받는 것이 있다. 예를 들어 '防風通聖散'이 "一切風熱燥證"²⁸⁾을 치료하고, '神芎丸'이 "治一切熱證, 常服保養"²⁹⁾하니 "如常服此藥, 但除腸垢積滯, 不傷和氣"³⁰⁾하며, '益元散'은 "補五勞七傷, 一切虛損"³¹⁾하는 등 '一切', '常服', '한량한 약이 능히 保養한다'는 등은 瀉가 補가 되는 식이요, 용약이 치우쳐 일반적인 이치에 위배된다고 말한다. 실은 그 속에 劉氏의 혜안이 드러난다. 그는 북방에 거주하였고 본래 기후가 건조하며 또한 "天以常火, 人以常動"³²⁾하였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품성이 강하

23) 張介賓: 『景岳全書·新方八陣』『寒陣·抽薪飲』『張景岳醫學全書』,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 1590.

24) 上揭書: 『寒陣·徒薪飲』, p. 1590.

25) 上揭書: 『寒陣·化飲煎』, p. 1590.

26) 上揭書: 『寒陣·太清飲』, p. 1591.

27) 上揭書: 『攻陣·百順丸』, p. 1587.

28) 前揭書: 『黃帝素問宣明論方』卷三『風門·諸風總論』, p. 58.

29) 上揭書: 『熱門·藥證方』, p. 62.

30) 上揭書: 『熱門·藥證方』, p. 62.

31) 上揭書: 『泄痢門·藥證方』, p. 86.

32) 劉完素: 『素問病機氣宜保命集』『傷寒論第六』『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中國中醫藥出版社, 1995, p. 111.

19) 上揭書: 『傷寒門·傷寒方』, p. 70.

20) 上揭書: 『傷寒門·傷寒方』, p. 68.

21) 上揭書: 『水濕門·藥證方』, p. 77.

22) 上揭書: 『傷寒門·傷寒方』, p. 71.

고 거친 음식을 많이 먹어 腸胃가 秘燥한 경향을 띠고 있다. 이러한 생활환경 아래에서 辛苦하고 寒한 약을 상용하여 結滯된 것을 개통시키고 潤燥시키는 것은 매우 합리적이고 필요한 것으로 이른바 “異法方宜”라 할 수 있다. 『黃帝內經』에서 “地有高下, 氣有溫涼. 高者氣寒, 下者氣熱. 故適寒涼者瘡, 之溫熱者瘡; 下之則瘡已, 汗之則瘡已. 此腠理開閉之常, 太少之異耳”³³⁾라 하였다. 유하간은 『내경』에 대해 깊이 연구하고 또한 天時와 地理를 잘 살펴 “發表不遠熱, 攻裏不遠寒”³⁴⁾의 이론을 운용하여 상술한 용약방법을 창안하였는데, 이는 실천경험의 결정이라 말할 수 있다.

(3) 惠民局의 영향

하간 방약의 용량과 용법은 또한 해민국의 영향을 상당히 받았다는 것도 무시할 수 없다. 惠民局과 和劑局은 같은 것으로 金代에 북송의 제도를 계승하였다. 이는 정부조직에 속하고 成方과 成藥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였기 때문에 유씨의 방에도 成藥이 비교적 많고 용량이 가볍다. 『宣明論方』의 366가지 방에서 散으로 칭할 수 있는 것이 126방, 湯으로 칭할 수 있는 것이 87방이 있는데, 그 중에 18가지 방만이 진정으로 탕제라 할 수 있고 그 나머지는 煮散에 가깝다. 丸이라 칭한 116방에서 3방은 圓이라 하였다. 飲子 8방, 丹劑 15방, 膏劑 9방, 餅子 2방, 散子 2방, 挺子 1방이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대부분이 成藥에 속하지만 유씨는 그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제거하여 수많은 방 뒤에 가감 용약법을 보완하여 成方을 활용하였다. 제형에 대해 특히 우수하여 煮散과 같은 것을 충분히 이용하여 성약을 활용하였다. 그의 名方인 ‘地黃飲子’³⁵⁾는 暗辨證를 치료한다. 熟地, 萸肉, 附子, 肉桂, 巴戟, 菴蓉 등 15가지로 되어 있어 한량한 수법에 반하여 甘溫으로 개량하고 또한 음양을 겸하여 조절하여 그의 다양한

기량을 반영하였다. 이와 같이 중요한 방은 오히려 『局方』의 飲子 방법을 채용하여 약을 분말로 만들어 3돈씩 복용하는데 薑棗薄荷로 煎服한다. 重한 약을 輕하게 투여하여 補하되 滯통성 있게 緩함을 취하였는데 이는 고인이 補를 하는 뜻을 깊이 깨달은 것이다.

또한 ‘調中散’³⁶⁾은 心掣不定하고 胸中氣痞와 刺痛을 치료하는데 역시 온약을 사용하였다. 理中湯에 當歸, 官桂, 赤茯苓, 五味子를 가하여 기혈을 서로 겸하고 溫經하고 또한 散에 斂을 겸하였다. 煮散의 방법을 운용하여 약을 분말로 만들어 3돈씩 복용하는데 끓인 물에 溫服한다. 이 또한 緩急을 병행시켜 平治가 상합한 것으로 병세를 충분히 고려하고 또한 『局方』을 발휘시켰다.

상술한 것을 종합하면 유씨의 방약은 병세에 따르고 또한 滯통성을 다양하게 발휘하여 현재 입장에서 喜補惡寒하고 큰 劑量을 즐겨 사용하는 것에 대해 지도적인 의의가 있다. 丸藥과 煮散을 많이 이용함으로써 약재를 절감할 수 있다. 특히 煮散法은 만성질병에 대해 한층 새로운 의의가 있다.

2) 주요 方劑

(1) 防風通聖散³⁷⁾

조성 : 防風, 川芎, 當歸, 芍藥, 大黃, 薄荷, 麻黃, 連翹, 芒硝 各 4.5g, 石膏, 黃芩, 桔梗 各 9g, 滑石 27g, 甘草 18g, 荊芥, 白朮, 梔子 各 3g.

주치 : 風熱爲病, 表鬱不解, 胃腸結熱, 表裏三焦俱實 등의 증.

용법 : 모두 분말로 만들어 한 번에 6g을 복용한다. 물은 큰잔 한잔에 생강 3쪽을 넣어 6분 동안 달여서 따뜻하게 복용하며, 가래가 올라올 때는 생강에 법제한 半夏 4.5g을 가한다.

고안 : 본방은 ‘風熱佛鬱’을 치료하기 위하여 입방한 것이다. 주치는 寒閉腠理, 陽鬱化熱, 表裏三焦가 모두 실한 증상을 다스린다. 따라서 表裏, 上下를 分消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여 맺힌 ‘양기’

33) 『黃帝內經·素問』 『五常政大論』

34) 前掲書 : 『素問病機氣宜保命集』 『傷寒論第六』, p. 111.

35) 前掲書 : 『黃帝素問宣明論方』 卷二 『諸證門·暗辨證』, p. 53.

36) 上掲書 : 卷一 『諸證門·心掣證』, p. 49.

37) 上掲書 : 卷三 『風門·諸風總論』, p. 58.

를 소통시키고 '표리'의 '열'을 씻어버리는 것이다. 이에 관하여 吳鶴阜는 “防風, 麻黃解表藥也, 風熱之在皮膚者, 得之而汗泄. 荊芥, 薄荷, 清上藥也, 風熱之在巔頂者, 得之由鼻而泄. 大黃, 芒硝, 通利藥也, 風熱之在腸胃者, 得之由後而泄. 滑石, 梔子, 水道藥也, 風熱之在決瀆者, 得之由溺而泄. 風淫于膈, 肺胃受邪, 石膏, 桔梗, 清肺藥也. 而連翹, 黃芩, 又所以去諸經之遊火. 風爲患, 肝木主之, 川芎, 當歸, 和肝藥也. 而甘草, 白朮, 所以和胃而健脾.”³⁸⁾이라 하였다.

약물의 배율을 살펴보면 이 처방은 解表通裏, 和氣和血, 調理二便, 疎利三焦, 健脾益胃시켜 여러 방면을 빈틈없이 고려하였다. 처방의 출처는 『선명론방』으로 유씨의 가장 유명한 대표적인 방제이다. 이 처방 아래에는 賈同知的 ‘通聖散’³⁹⁾, 崔宣武의 ‘通聖散’⁴⁰⁾, 劉庭瑞의 ‘通聖散’⁴¹⁾ 등 3처방이 부기되어 있는데, 유씨의 처방과 약물 조성이 대동소이하여 당시에 이 처방이 크게 유전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2) 三花神佑丸⁴²⁾

조성 : 甘遂, 大戟, 芫花(醋拌濕炒) 각 45g, 牽牛 18g, 大黃 9g(爲細末), 輕粉 3g.

주치 : 中滿腹脹을 치료하고 濕熱水腫, 淋閉와 癥瘕積聚에 대응되었다.

용법 : 분말로 만들고 물을 조금씩 떨어뜨려 콩알크기로 환약을 만들어 처음에는 5환을 복용하고 매번 5환씩 더하여 온수로 복용하며, 매일 3차례 복용하여 대변을 시원하게 나올 때까지 복용한다. 설사가 나면 복용을 중지하는데, 이는 병이 물러남을 원칙으로 삼기 때문이다. 병이 나은 후에라도 노약자나 허약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 자주 복용하여 ‘기혈’을 소통시켜 保養하는데

음주는 금한다. 癍悶으로 답답함이 심한 경우 곧바로 많이 복용하면 오히려 ‘攻下’시키는 기운이 열리지 않고 도리어 痛悶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처음에는 2환씩 복용하고 매번 2환씩 더하여, 대변을 시원하게 볼 때까지 복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소아는 환약을 삼켜 크기만큼 만들어 체질의 강약에 따라 용량을 늘리거나 감소시키고, 3-4살 어린이는 3환에서 5환까지 복용하며 복용 방법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고안 : 본방은 逐水峻劑로 『金匱』의 ‘十棗湯’에 비해 더욱 강하다. 그가 치료에 응용한 질병의 기전은 濕熱瘀阻, 痰飲內聚, 氣血壅滯, 形氣俱實에 해당한다. 따라서 芫花, 甘遂, 大戟을 함께 사용하여 ‘十棗湯’의 峻下逐水を 취하여 급하게 標를 치료한다. 여기에 苦寒한 牽牛, 大黃을 가하여 痰飲과 濕熱을 蕩滌한다. 또한 辛寒하고 有毒한 輕粉을 가하여 攻伐시키는 힘을 가중시켰다. 急下峻攻의 효과를 얻기 위하여 大寒, 大毒한 약물을 꺼리지 않았다. 이 처방에는 독성이 있고 약력이 강하기 때문에 유씨는 신중하게 변증하고 적절히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이를테면 癍悶이 극심한 자를 치료할 경우에는 약성이 강한 약물로 천천히 투약하여 攻伐을 하는데, 이때는 정기의 손상을 신중히 고려하였다. 그는 처방 뒷부분에 복용 방법을 설명하였는데, 만약 한번에 과량으로 복용하면 “則頓攻不開, 轉加痛悶”⁴³⁾하니 먼저 2환을 복용한 후에 매번 2환씩 늘려 “至快利爲度”⁴⁴⁾한다고 하였다. 후대에 이 처방에 靑皮, 橘皮, 木香, 檳榔을 가하여 ‘舟車丸’ 또는 ‘舟車神佑丸’이라 하였다.

(3) 雙解散⁴⁵⁾

조성 : 益元散 60g, 防風通聖散 60g

주치 : 여름과 가을에 暑濕이 겹친 感冒.

용법 : 이상의 두 처방을 서로 배합하여 雙解散이라 한다. 균일하게 攪拌하여 매번 9g씩 복용하

38) 吳崑 : 『醫方考』, 『中風門』, 『吳崑醫學全書』,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 13.

39) 前掲書 : 『黃帝素問宣明論方』 卷三 『風門·諸風總論』, p. 59.

40) 上掲書 : 卷三 『風門·諸風總論』, p. 59.

41) 上掲書 : 卷三 『風門·諸風總論』, p. 59.

42) 前掲書 : 『黃帝素問宣明論方』 『水濕門·藥證方』, p. 77.

43) 上掲書 : 『水濕門·藥證方』, p. 77.

44) 上掲書 : 『水濕門·藥證方』, p. 77.

45) 上掲書 : 『傷寒門·傷寒方』, p. 71.

는데, 물 1잔 반에 葱白 5寸, 鹽豉 50丸, 生薑 3쪽을 넣고 1잔이 되도록 달여서 따뜻하게 복용한다.

고안 : 이 방은 '防風通聖散'을 기초로 滑石과 甘草의 분량을 늘여 暑濕에 치중하였고, 또한 葱, 豉, 生薑을 가하여 發汗과 通利를 함께 시행하기 때문에 '雙解散'이라고 한다. 적응증은 주로 風寒, 暑濕爲患, 佛熱鬱結, 表裏俱實한 경우이다. 유씨는 병인을 '暑濕'이라 하였고, 약물 구성에 있어 清暑滲濕시키는 '益元散'을 중용하여 여름과 가을철 外感風寒과 濕熱內蘊의 증상에 대처하였다. 雙解의 의미는 雙解表裏, 雙解風寒暑濕을 뜻한다.

(4) 三一承氣湯⁴⁶⁾

조성 : 大黃 45g, 芒硝 45g, 厚朴(去皮) 45g, 枳實 45g, 甘草 9g.

주치 : 傷寒, 雜病을 치료하고 內熱壅盛, 腹滿咽乾, 煩渴譫妄, 心下硬痛, 溲赤便結 등 裏熱이 울체된 증을 치료한다.

용법 : 물 1잔 반에 생강 3쪽을 넣어서, 7분 동안 2첩을 달여서 찌꺼기는 버리고 복용한다.

고안 : 본방은 '大承氣湯'에 甘草의 용량이 전체의 1/3이 되게 증가시킨 것으로 일설에는 '大承氣湯', '小承氣湯', '調胃承氣湯'을 한 처방으로 만든 것이라 한다. 본방은 三承氣가 미치지 못한 것을 보충하는 의미가 있다. 처방에서는 甘草를 중용하여 急藥을 완만을 투여하여 峻烈한 성질을 평하게 하였다. 주된 치칙은 장중경의 '大承氣湯'을 기초하여 개념을 확장시킨 것으로 즉 "傷寒, 雜病, 內外一切所傷, 日數遠近"뿐만 아니라 胃腸에 열이 뭉쳐 울체된 경우에 모두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유씨가 傷寒에 攻裏하는 중요한 처방이다.

(5) 大金花丸⁴⁷⁾

조성 : 大梔子, 黃栢, 黃芩, 大黃 각 등분.

主治 : 中外諸熱, 寢汗咬牙, 譫語驚悸, 溺血淋秘, 咳血瘦弱, 頭痛并骨蒸, 肺痿喘氣을 치료하고

대변을去한다.

용법 : 모두 분말로 만들어 물을 조금씩 부어 작은 공알 크기만큼 환약을 만들고, 매번 20-30환씩 복용한다. 설사가 나면 大黃은 제거하고 梔子를 가한다. 소아는 삼씨 크기로 환약을 만들어 3환에서 5환정도 복용시킨다.

고안 : 본방과 '黃連解毒湯'을 비교하면 한가지 약물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胃腸의 實熱과 積滯를 씻는 大黃을 선용하고, 心胃의 火를 清潔하게 하는 黃連을 사용하여 清利시키는 작용을 더욱 강하게 하였다. 三焦의 火를 내리는 梔子를 처방의 첫머리에 두고, 清上하는 黃芩과 清下하는 黃栢과 더불어 地道를 通利시키는 大黃을 배합하였다. 水升火降을 통하여 中外的 열을 제거하고 清利시키기 때문에 일명 "既濟解化丸"⁴⁸⁾이라고도 한다. 丸劑를 미리 만들어 놓고 급할 때 완만하게 투여한다는 뜻을 취하였다.

(6) 益元散⁴⁹⁾

조성 : 滑石 18g, 甘草 3g.

주치 : 暑濕身熱, 心煩口渴, 小便不利 및 三焦濕熱, 小便淋痛을 치료.

용법 : 분말로 만들어 매번 9g을 따뜻한 물에 調服하고 하루에 3번 복용한다. 차게 복용할 경우에는 새로운 물로 조복한다. 解利傷寒, 發汗할 경우 '익원산' 12g을 煎湯하여(매번 물 1잔, 葱白 5寸, 豆豉 50粒을 끓여서 1잔으로 만듦) 하루에 3번 복용한다.

고안 : 본방은 일명 '天水散', '六一散' 또는 '太白散'이라 하기도 한다. 君藥인 滑石은 味가 甘淡하고 性은 寒하며 성질이 무겁고 滑하고 淡은 滲濕하고 寒은 清熱하며 清熱解毒과 利水通淋의 효능이 있다. 甘草를 적절하게 보좌하면 清熱和中할 수 있고 지나치게 寒利한 滑石의 성질을 緩解시킬 수 있다. 처방이 두 가지 약물로 구성되어 간단하지만 오묘한 기능을 지니고 있어 清熱解暑, 通利小便시키는 중요한 처방이다. '白虎湯',

46) 上掲書 : 『傷寒門·傷寒方』, p. 68.

47) 上掲書 : 『熱門·傷寒方』, p. 64.

48) 上掲書 : 『熱門·傷寒方』, p. 64.

49) 上掲書 : 『泄痢門·藥證方』, p. 86.

‘生脈散’과 더불어 여름철에 상용하는 처방이다. 이 처방이 비록 간단하지만 응용 범위가 아주 넓고 약물의 가감 역시 비교적 다양하다. 辰砂를 가하면 ‘辰砂六一散’, 黃丹을 가하면 ‘紅玉散’, 靑黛를 가하면 ‘碧玉散’, 薄荷를 가하면 ‘鷄蘇散’이 된다. 이 밖에 ‘吳萸六一散’, ‘黃芪六一散’, ‘淸六丸’, ‘溫六丸’ 등 처방을 다양하게 변화시켰다. 유씨는 本方을 응용하여 70여 가지 증상을 치료하였으니, 약효와 응용 범위가 넓음을 알 수 있다.

(7) 大建中湯⁵⁰⁾

조성 : 黃芪, 遠志(去心), 當歸, 澤瀉 각 27g, 芍藥, 人蔘, 龍骨, 甘草(灸) 각 18g.

주치 : 蠱病, 小腹急痛, 便溺失精, 洩而出白液.

용법 : 모두 분말하여 매번 9g을 물 한잔에 생강 5쪽을 8분 동안 달여서 찌꺼기는 버리고 따뜻하게 복용하는데 시간은 가리지 않는다.

고안 : 유씨가 임방한 ‘대건중탕’과 『金匱要略』의 ‘대건중탕’은 그 구성과 주치가 완전히 다르다. 『금궤요략』의 처방은 大辛大熱한 蜀椒, 乾薑과, 甘平益氣하는 人蔘과 甘溫緩中하는 飴糖을 사용하여 溫熱한 補劑로 구성되어 있는데, 中焦의 陽氣가 허약한 것과 陰寒內盛으로 인한 脘腹劇痛을 치료한다. 그러나 유씨의 ‘대건중탕’은 補瀉를 兼施하고 寒熱을 병용하여 ‘蠱病’을 주치한다. ‘蠱病’에 관하여 『소문』에는 “少腹鬱熱而痛, 尿出白液, 名曰蠱.”⁵¹⁾라 하여 白濁으로 眞陰이 훼손된 것을 뜻하며, 이른바 蠱가 吸血하는 蠱脹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本方은 주로 瀉熱하면서 固澁한 것을 보충하여 下元을 함께 보함으로써 熱淸痛止, 腎精固密하는 효능이 있다.

(8) 當歸龍膽丸⁵²⁾

조성 : 當歸(焙), 龍膽草, 大梔子, 黃連, 黃柏, 黃芩 각 9g, 大黃, 蘆薈, 靑黛 각 4.5g, 木香 0.3g, 麝香 1.5g.

주치 : 腎水陰虛, 風熱이 蘊積하여 頭目昏眩, 胸膈痞塞, 心志不寧, 때때로 驚悸를 발하는 것 및 소아 急慢驚風을 치료한다.

용법 : 모두 세말하여 작은 콩알 크기의 蜜丸으로 만들고 소아는 삼씨 크기 정도로 만들어 매번 20환씩 ‘生薑湯’으로 복용한다. 열이 날 경우에는 다른 약물의 복용을 금지하고 ‘방풍통성산’과 함께 복용한다.

고안 : 서술한 여러 병증의 전체적인 원인은 風熱佛鬱, 腎水陰虛, 陽亢火盛이다. 따라서 유씨는 苦寒한 大劑로 직접 양을 물리치는 방법을 적용하고, ‘방풍통성산’을 함께 복용시킴으로써 表裏鬱熱을 푼다. 腎水虛弱은 鬱熱의 熬煎으로 발생되며 해열되면 腎水가 보존된다. 이는 유씨가 흔히 사용한 “宣通氣血, 調順陰陽”⁵³⁾의 방법이다.

(9) 秘方茶酒調散⁵⁴⁾

조성 : 生石膏(별도로 細末), 菊花, 細辛(去苗), 香附子(去須炒) 각 등분.

주치 : 一切諸風, 痰壅目澁, 昏眩頭痛, 心憤煩熱, 皮膚痛痒, 風毒壅滯를 치료.

용법 : 細末하여 매번 6g씩 따뜻한 찻물이나 술로 매일 식사 후 3번씩 복용한다.

고안 : 본방은 辛涼輕劑로 風火가 上攻하여 두통, 빈열을 치료하는데, 『태평혜민화제국방』의 ‘川芎茶調散’을 변통한 것이다. 石膏의 甘寒으로 빈열을 제거하고, 細辛의 辛溫으로 浮熱과 火鬱을 발산하며 두통을 멈추게 한다. 菊花의 苦平으로 머리와 눈을 맑게 하고 風眩을 없앤다. 細辛의 辛溫으로 浮熱과 火鬱을 발산하며 두통을 멈추게 한다. 香附子の 甘苦辛함과 微寒은 行氣開鬱하고 頭風을 멈추게 한다. 茶는 頭目を 맑게 하고 酒는 약의 힘을 도와 주어 전체적으로 淸熱祛風과 利竅止痛의 효능을 갖추었다.

(10) 桂苓甘露散⁵⁵⁾

50) 上揭書 : 『諸證門·蠱病證』, p. 50.

51) 『黃帝內經·素問』, 『玉機眞藏論』.

52) 上揭書 : 『熱門·藥證方』, p. 64.

53) 上揭書 : 『熱門·藥證方』, p. 64.

54) 上揭書 : 『諸證門·首風門』, p. 45.

55) 上揭書 : 『傷寒門·傷寒方』, p. 69.

조성 : 茯苓(去皮) 9g, 甘草(炙) 18g, 白朮 4.5g, 澤瀉 9g, 肉桂(去皮) 4.5g, 石膏 18g, 寒水石 18g, 滑石 36g, 豬苓 4.5g.

주치 : 中暑受濕, 頭痛發熱, 煩渴引飲小便不利 및 霍亂吐下, 腹痛滿悶 혹은 小兒吐瀉驚風을 치료한다.

용법 : 모두 세말하여 매번 9g씩 따뜻한 물에 복용하며, '생강탕'으로 복용하는 것이 더욱 좋다. 소아는 매번 마다 3g씩 같은 방법으로 복용한다.

고안 : 본방은 '五苓散'에 石膏, 寒水石, 滑石 등 3가지 石藥을 첨가한 것이다. 雙解表裏, 利水滲濕시키는 효능에 淸熱鎮逆하는 효과를 증진시켜 暑熱挾濕, 吐瀉霍亂을 치료한다. 본방은 浮越하는 陽熱을 진압하고 유형의 水液을 제거하고 무형의 眞陰을 회복시키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11) 川芎石膏湯⁵⁶⁾

조성 : 川芎, 芍藥, 當歸, 山梔子, 黃芩, 大黃, 菊花, 荊芥穗, 人蔘, 白朮 각 4.5g, 滑石 36g, 寒水石 18g, 甘草 27g, 桔梗 18g, 縮砂仁 0.3g, 石膏, 防風, 連翹, 薄荷 각 9g.

주치 : 風熱이 頭目을 上攻하여 目眩頭痛, 鼻塞喘穗, 口舌生瘡, 眼生膜翳 및 中風偏枯, 諸病勞復을 치료.

용법 : 모두 분말로 만들어 6g씩 물 1잔을 넣어 6분 동안 달여서, 찌꺼기는 버리고 식사 후에 물로 調服한다. 생강이나 식초 등 발열성 약물을 금지해야 한다.

고안 : 이 처방은 주로 내부에 實熱이 있고 외부로 風邪에 감하여 內風에 외풍까지 얻어서 풍화가 上攻하여 '目昏眩痛閉'하는 것을 치료한다. 따라서 淸內疏外, 淸水散風해야 한다. 荊, 防, 薄荷, 桔梗으로 두목을 청신하게 하고 風熱을 발산한다. 大黃, 黃芩, 連翹, 梔子, 滑石, 寒水石 등 대량의 한량의 약물로 내열을 淸瀉한다. 攻邪에 있어서 정기를 돕는 것도 고려하여 健脾益氣하고 혈기와 영기를 기르는 參, 朮, 歸, 芎 등을 가하였다. 유씨의 처방은 법도가 엄격하고 여러모로 모

56) 上揭書 : 『風門·藥證方』, p. 51.

두 틀에 잡혀있다고 말할 수 있다.

(12) 全聖散⁵⁷⁾

조성 : 地膽(去足翅, 微炒) 4.5g, 滑石 9g, 朱砂 1.5g.

주치 : 小腸膀胱의 氣痛으로 참지 못하는 것을 치료.

용법 : 분말로 만들어 매번 6g씩 苦杖酒에 조복하고 식전에 복용한다.

고안 : 地膽은 처방에서 주된 약물로 破癥散結, 攻毒蝕瘡하는 효과가 있다. 利水通淋시키는 滑石과 甘寒淸熱하는 朱砂를 배오하여 消腫塊, 通淋秘, 淸下焦積熱시키는데 이는 "小腸膀胱氣痛不忍者"⁵⁸⁾를 치료한다. 이 증상은 열이 下焦에 은폐되어 기혈이 통하지 않아 石淋이 되거나 혹은 癥瘕가 前陰과 後陰을 막아서 小腹이 참을 수 없게 아프기 때문에 破癥散結, 淸熱通利하여 동통을 멈추게 한다.

(13) 地榆湯⁵⁹⁾

조성 : 地榆 36g, 甘草(半炙半生) 27g, 縮砂仁(炒) 7枚.

주치 : 陰結下血不止, 腹痛不已.

용법 : 모두 분말로 만들어 매번 4.5g씩 물 3잔에 縮砂仁과 함께 달여서 절반 달였을 때 찌꺼기를 버리고 따뜻하게 복용한다.

고안 : 이 처방은 주로 陰結하여 氣血이 통하지 못하고 혈이 맥 밖으로 나와서 腸 사이에 침투되어 便血이 멈추지 않는 증상을 치료한다. 地榆는 미가 苦酸하고 性이 微寒하며 淸熱止血한다. 甘草蜜炙는 益氣補中하고 생것은 淸熱解毒하고 緩急止痛하며 半炙半生은 양자를 겸한다. 砂仁은 和中止痛하여 灸草를 도와 健脾하고 地榆를 도와 止血을 하며 3가지 약을 合用하면 補瀉가 겸비되고 寒溫이 함께하여 收散陰結, 行氣血, 止血止痛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57) 上揭書 : 『雜病門·藥證方』, p. 105.

58) 上揭書 : 『雜病門·藥證方』, p. 105.

59) 上揭書 : 『諸證門·結陰證』, p. 49.

(14) 人蔘散⁶⁰⁾

조성 : 石膏, 甘草 各 9g, 滑石 36g, 寒水石 18g, 人蔘 4.5g.

주치 : 積熱黃瘦, 膈熱嘔吐, 煩渴, 濕熱瀉痢. 혹은 目赤口瘡, 咽喉腫痛.

용법 : 모두 분말로 만들어 매번 6g씩 따뜻한 물로 아침과 저녁으로 식후에 복용하며, '梔子金花丸'을 같이 복용한다.

안어 : 유씨는 『소문현기원병식』에서 “胃膈熱甚則爲嘔, 火性炎上之象也.”⁶¹⁾ “煩渴嘔吐, 皆熱證也”⁶²⁾라 하였다. '인삼산'은 熱嘔를 치료하기 위하여 입방한 것이다. 熱嘔의 특징은 胸膈이 번열하고, 먹은 즉시로 구토하며, 입이 말라 자주 냉수를 마시기 좋아하고, 舌紅苔黃하며, 脈이 弦滑數하다. 유씨는 『聖濟總錄』에서 甘寒輕劑로 구토를 치료하는 뜻을 취하여 石膏, 滑石, 寒水石 등 性寒味甘한 약물을 골라 清熱潤胃하여 구토를 멈추게 하였다. 人蔘, 甘草로 扶正和中하고, 寒涼瀉熱로 비위를 손상시키지 않게 하였다.

(15) 芍藥湯⁶³⁾

조성 : 芍藥 9g, 當歸, 黃連 各 4.5g, 檳榔 2g, 木香 2g, 甘草(炙) 2g, 大黃 3g, 黃芩 4.5g, 官桂 1.5g

주치 : 濕熱痢, 腹痛便膿血, 赤白相兼, 裏急後重.

용법 : 매번 4.5g 복용하는데 물 2잔으로 1잔까지 달여서 식후에 따뜻하게 복용한다. 血痢에는 大黃을 약간 가하고 汗後臟毒에는 黃芩 반량을 가하여 앞의 방법과 같이 복용한다.

안어 : 본방은 '痢疾'을 치료하는 유명한 방제이다. '이질'은 여름이나 가을철에 많이 발생하며, 원인은 음식물이 불결하고 濕熱이 下焦에 蘊結하여 일어나는 것이다. 유씨는 '이질'은 濕熱鬱證이 관건이 된다고 보고 清熱燥濕의 치칙을 세우고

동시에 理氣和血을 겸하여 “行血則便膿自愈, 調氣則後重自除”⁶⁴⁾함을 주장하여 후대 '이질' 치료의 중요한 원칙을 세웠다.

(16) 內疏黃連湯⁶⁵⁾

조성 : 黃連, 芍藥, 當歸, 檳榔, 木香, 黃芩, 山梔子, 薄荷, 桔梗, 甘草 各 9g, 連翹 18g.

주치 : 瘡瘍腫硬木悶, 根盤深大, 皮色不變, 嘔噦煩熱, 大便秘結, 脈象沈實者를 치료.

용법 : 檳榔, 木香을 세말하고 나머지 약물은 작두로 자른다. 매번 9g씩 복용하고 물 1잔 반에 먼저 1잔정도 달이고, 한두 톱 먹고 다음은 매번 大黃 1g을 첨가한다. 그 다음 복용할 때 다시 1g을 가하며 설사가 나오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만약 열증이 있으면 '黃連湯'의 복용을 중지하고, 대변이 건조하면 대황을 가한다. 熱證이 없다고 느끼면 '內托散'이나 '復煎散'을 넣지 말고 조금 달여서 때때로 복용한다. 만약 실제로 열이 없고 대소변이 통할 경우는 '復煎散'의 복용을 중지한다. 조금이라도 열증이 있으면 '黃連湯'을 복용하고, 열이 많고 대변이 건조할 경우 大黃을 가한다. 이렇게 내외가 모두 통하고 영위가 조화를 이루면 경락의 흐름이 막히지 않는다.

안어 : 지나치게 기름진 음식은 과다하게 복용하면 熱을 내부에서 발생되고, 臟腑에는 열이 더욱 심하게 쌓여서 '瘡瘍'이 속에서 밖으로 형성된다. 유씨는 스스로 '내소황련탕'을 입방하여, 瀉熱解毒, 行氣導滯, 疏通臟腑하여 '창양'이 발생하는 병인의 근원을 없앴다.

(17) 神芎丸⁶⁶⁾

조성 : 大黃, 黃芩 各 4.5g, 牽牛, 滑石 各 36g, 黃連, 薄荷, 川芎 各 4.5g.

주치 : 一切熱證을 치료한다. 痰飲을 없애고 酒食을 삭이고 頭目을 청하게 하고 咽膈을 부드럽게 한다. 常服하면 保養하고 전신에 結滯된 것

60) 上揭書 : 『諸證門·煎厥證』, p. 48.

61) 劉完素 : 『素問玄機原病式』, 『熱類』,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中國中醫學出版社, 1995, p. 11.

62) 上揭書 : 『熱類』, p. 11.

63) 前揭書 : 『素問病機氣宜保命集』, 『瀉痢論』, p. 136.

64) 上揭書 : 『瀉痢論』, p. 136.

65) 上揭書 : 『瘡瘍論』, p. 148.

66) 前揭書 : 『黃帝素問宣明論方』, 『熱門·藥證方』, p. 62.

을 宣通시키고 氣를 통하게 하고 神強體健하게 하여 손상과 병을 이기게 한다. 그리고 婦人의 經病 및 産後血滯와 腰脚重痛을 치료한다. 小兒의 積熱驚風과 潮搐을 치료한다.

용법 : 세말하여 물을 조금씩 부어 콩알 크기의 환약을 만든다. 따뜻한 물로 10환 내지 15환 정도 복용한다. 매번 10환씩 늘려 매일 3번 복용하는데, 찬물로 복용할 수 있고 ‘煉蜜丸’하여 복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 또한 오랜 熱鬱로 인할 경우는 瘦悴나 老弱을 막론하고 모든 증상에 ‘攻下’시킬 수 있는데, 처음에는 10환을 복용하며 매번 10환씩 늘려 설사가 나오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혹은 열이 심하여 반드시 急下해야 할 경우는 40-50환씩 복용하며, 복용하여도 별도의 반응이 없는 경우는 설사가 날 때까지 복용한다. 3-5살의 소아는 환약을 삼씨 정도 크기로 만들어야 한다.

언어 : 본방은 유씨가 『선명론방』에서 언급한 『열론』의 첫 번째 처방이다. 自注에서 “一切熱證”을 치료한다고 하였고, 적응증은 胃腸鬱滯나 心經積熱로 발생하는 頭痛目赤, 口舌生瘡, 煩躁口渴, 胸膈不利, 大便秘結, 小便赤澀이다. 본방은 淸熱通便의 약물로 胃熱을 내리고 대변을 통하게 하며 滑石을 응용하여 利尿시키니, 열이 대소변을 통하여 풀어지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薄荷, 川芎, 黃芩으로 淸上焦, 利頭目하여 上淸下導, 散鬱滯熱시키는 효능이 있다.

(18) 倒換散⁶⁷⁾

조성 : 大黃(大便不通에는 半減한다), 荊芥穗(大便不通에는 半減한다) 각 등분.

主治 : 新久를 불문하고 癰閉不通, 小腹急痛, 肛門腫痛을 치료한다.

용법 : 이상 약물을 모두 가루로 내어 매번 1~2g씩 온수로 복용하며, 증상에 따라 적절하게 가감한다.

언어 : 본방은 ‘癰閉’를 치료하기 위해 입방한 것이다. 大黃의 苦寒으로 通裏하고 荊芥의 辛溫

으로 走表하는데 이는 小便를 통하게 하는 약물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유씨가 隔治나 反治法을 이용하여 通外者通內, 通上者通下, 通後者通前한 것이다.

3. 임상 경험

유씨는 풍부한 치료 경험을 가지고 있었지만 유감스럽게도 단 한 부의 醫案 저작도 전해지지 않는다. 그는 질병 치료에 독창적인 견해를 나타내었는데, 모두 『소문헌기원병식』 등의 이론 저작 특히 『선명론방』 속에 산재되어 있다. 아래에서 몇 가지 독창적인 견해를 귀납 정리하기로 한다.

1) 瀉火降逆하여 吐衄을 치료

유씨는 『소문헌기원병식』에서 “衄者, 陽熱拂鬱, 干于足陽明而上, 熱甚則血妄行爲鼻衄也”, “血溢者上出也. 心養于血, 故熱甚則血有餘而妄行”⁶⁸⁾이라 하였다.

‘血溢’은 출혈을 뜻하고 口, 鼻, 眼, 耳 등 上竅에서 혈액이 밖으로 넘치는 병증을 지칭한다. 임상적으로 咳血, 咯血, 吐血, 衄血이 많이 관찰된다. 유씨는 心火가 血脈을 溫養함이 지나쳐 迫血妄行하여 陽熱이 拂鬱하게 되면, 足陽明胃經으로 上衝하여 鼻衄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出血證에 관한 虛實寒熱의 개념이 당시에는 비교적 혼잡스러워 ‘紫色은 寒에 속하고 紅色은 熱에 속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유씨는 이에 반대하여 “或謂嘔吐紫凝血爲寒者誤也, 此非冷凝, 由熱甚銷燦以爲稠濁, 而熱甚則水化制之, 故赤兼黑爲紫也”⁶⁹⁾라 하여, 紫黑血을 嘔吐하는 증상은 ‘熱證’에 속한다고 분명히 지적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실제로 위장 출혈로 인한 피의 색깔이 紫黑이거나 鮮紅인 것은 寒熱과 큰 관계가 없고 胃 속에서 얼마나 오래 무르는 지와 관련이 깊다는 점으로 볼 때 과학적 근거가 있는 말이다. 이에 관하여 그는 “諸見血證無寒, 衄血, 下血,

68) 前掲書 : 『素問玄機原病式』 『熱類』, p. 15.

69) 上掲書 : 『熱類』, p. 15.

67) 上掲書 : 『雜病門·藥證方』, p. 105.

吐血, 尿血皆屬于熱, 但血家證, 皆宜服生地黄散: 生地黄, 熟地黄, 枸杞子, 地骨皮, 天門冬, 黃芪, 芍藥, 甘草, 黃芩各等分. 同到細, 每服(30g), 水一盞半, 煎至一盞, 去渣溫服. 如脈微身涼惡風, 每服一兩(30g), 加肉桂(1.5g), 吐血者多有此證⁷⁰⁾이라 하였다.

여기서 유씨는 血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변증 요점을 제출하였다.

첫째로 血證無寒은 대개 熱에 속한다고 하여, 止血시키기 위해서 寒涼之劑를 많이 사용하였다.

둘째로 出血을 上下로 구분하여 心火, 胃熱, 火炎于上 등에서 기인한 上竅出血은 清火降逆 치법을 이용하였다.

유씨는 ‘大金花丸’으로 實熱로 인한 暴病咳衄을 치료하였고, ‘涼膈散’에 當歸, 芍藥, 生地黄을 가하여 內外俱熱의 吐衄을 치료하였다. ‘生地黄散’은 虛熱久病으로 인한 諸血證을 치료한다. 후세 ‘혈증’ 치료에 있어 유씨의 치법에 근거하여 효과를 보았는데, 이를테면 張仲華는 “鼻衄盛發流血不止者已三日, 面赤, 足冷至膝, 脈數, 寸關尤甚. 血去過多, 心蕩神馳. 陰虛內熱之體, 厥陽化火上逆, 擾動脈絡, 血行清道, 從高灌注而下, 非若吐紅之易定, 血有几何, 豈堪如此長流? 擬仿志火升騰治例, 用涼血滋降法⁷¹⁾”이라 하였다.

유씨는 출혈 증상에 ‘한증’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여 이론적으로 편중되었지만, ‘혈증’에 관한 계통적인 변증은 ‘血證’ 연구를 인도하였다. 예를 들어 繆仲淳의 『先醒齋醫學廣筆記』에서 “宜降氣, 不宜降火 …… 宜行血, 不宜止血 …… 宜補肝, 不宜伐肝⁷²⁾”이라 한 것이나, 唐容川이 『血證論』에서 吐血를 胃의 문제로 간주하여 “陽明之氣, 下行爲順, 今乃逆吐, 失其下行之令, 急調其胃, 使氣順吐止, 則血不致奔脫矣⁷³⁾”라 한 등의 논술은 유씨의 이론적인 바탕 아래 미비한 점을 보완한 것

70) 前掲書: 『素問病機氣宜保命集』 『生地黄散』, p. 154.

71) 『愛廬醫案』

72) 繆希雍: 『先醒齋醫學廣筆記』 『吐血』 『繆希雍醫學全書』,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 697.

73) 唐宗海: 『血證論』 『吐血』 『唐容川醫學全書』,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 81.

이다.

2) 胃熱을 清하여 癡狂을 치료

‘전광’은 心, 肝, 膽, 胃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病機의 차이가 있는데, 유씨가 언급한 ‘癡狂’은 胃熱의 과정에서 陽明이나 上焦의 열이 지나쳐 발생하는 정신 질환으로 懊憹煩心, 譫語譫妄, 狂亂躁擾 등의 주요 증상을 나타내는 ‘癡狂’을 뜻한다. 그는 ‘癡狂’에 대하여 “熱甚于外, 則肢體躁擾. 熱甚于內, 則神志躁動, 反復癡狂, 懊憹, 煩心, 不得眠也.”⁷⁴⁾, “狂者, 狂亂而無正定也. 越者, 乘越禮法而失常也 …… 凡熱于中, 則多干陽明胃經也. 『經』曰: 陽明之厥, 則癡疾欲走, 腹滿不得臥, 面赤而熱, 妄言. 又曰: 陽明病洒洒振寒, 善伸數欠 …… 獨閉戶牖而處, 欲上高而歌, 棄衣而走, 責響腹脹, 罵詈不避親疏⁷⁵⁾”라 하였다. 그는 『내경』의 본의를 채득하여 ‘諸躁狂越, 皆屬于火’의 병리적 기전은 陽明에 있다고 인식하고, 胃熱을 청하게 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직접 胃熱을 제거할 것을 주장하였다.

上焦에 열이 있으면 懊憹煩心하여 비록 躁擾狂越하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胸膈의 鬱熱은 胃腑에 열이 쌓인 것으로 다만 病位의 淺深만을 뿐이라고 보았다. 유씨는 ‘梔子湯’으로 佛鬱을 풀어 陽明이 熱灼하는 것을 방지하였다. 즉 “大梔七个, 豆豉半合. 少氣加甘草0.3g, 嘔加生薑4.5g, 先以水二盞煮梔子一盞半, 加入豆豉及所加藥物煎至半盞, 絞汁溫服⁷⁶⁾”하여 胸膈鬱熱을 上焦를 통해 풀어내었다.

傷寒表證이 풀리지 못하고 病邪가 도리어 속으로 들어가 下證이 낫지 않은 상태에서 腸胃에 燥澀한 증상이 보이고 譫語狂妄과 便溺秘結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양격산’으로 清上泄下하고 아울러 火熱의 사기를 陽明의 출구로 배출시켜야 한다. 만약 병세가 발전되어 痞滿燥實해져 煩躁譫妄이 나타날 경우에는 유씨는 ‘三一承氣湯’을

74) 前掲書: 『素問玄機原病式』 『火類』, p. 18.

75) 上掲書: 『火類』, p. 18.

76) 前掲書: 『黃帝素問宣明論方』 『傷寒門·傷寒方』, p. 69.

선택하여 치료하였다.

이는 『상한론』에 대한 발휘이며 후인들에게 ‘狂越’ 치료에 직접적으로 腸胃를 淸利할 것을 깨닫게 하였다. 이를테면 “羅謙輔治丑斯兀關病五七日，發狂亂，棄衣而走，呼叫不避親疏……羅診之，脈得六至，數日不更衣，渴飲潼乳。羅曰：北地高寒，腠理致密，少有病傷寒者，然北地比夏初時，乍寒乍熱，因此觸冒寒邪，失于解利，轉屬陽明證，胃實證語，又食羊肉以助其熱，兩熱相合，是謂重陽……『難經』說：‘重陽者狂’，陽勝宜下，急以大承氣湯一兩半，加黃連二錢，水煎服之，當夜行燥尤數行，得汗而解，次日身涼脈緩而愈”⁷⁷⁾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후세에 보편적으로 채용되었고, ‘雜病癲狂’ 치료까지 확대되어 응용되었다. 때문에 尤怡는 癲狂에 관하여 “未有無火者，火性炎上，故登高而歌，棄衣而走，黃連能瀉心火。病屬陽明，故用大黃以瀉之，釜底抽薪法也”⁷⁸⁾라 하였다.

3) 淸熱利水로 浮腫을 치료

유씨는 ‘浮腫’에 관하여 “濕病本不自生，因于大熱佛鬱，水液不能宣通，即停滯而生水濕也。凡濕病者多自熱生……”⁷⁹⁾ “雖病水寒，不得宣行，亦能爲濕，雖有此異，亦以鮮矣。或附腫體寒而有水者，以畜熱入裏極深，而本非病寒也”⁸⁰⁾라 하였다.

水濕의 주증은 ‘浮腫’과 ‘小便不利’이다. 『소문현기원병식』에서는 ‘濕類’와 ‘火類’로 나누어 논하고 있다. 전자는 脾의 문제로 積飲, 痞隔, 中滿, 霍亂吐下 등 脾陽의 손상으로 인해 濕邪가 막아 脾가 운화하지 못함으로써 水濕이 四肢肌腠에 정체되어 ‘부종’이 발생한다. 또한 후자는 火에 속하며 邪熱이 지나쳐 양기가 내부에 울체되어 습열이 肌膚로 넘쳐서 나타난다. 유씨는 이러한 증상의 병리적 기전을 熱鬱不散에 두었고, 身寒水腫 환자

에 대하여 그는 대다수가 ‘寒證’이 아니라 ‘蓄熱入裏’가 극심하여 발생하는 ‘假象’으로 보았다.

유씨는 『선명론방』에서 비교적 계통적으로 ‘水腫’의 처방에 대해 논술하고 있다. 그는 습열로 인하여 발생한 ‘수종’ 치료에 능숙했다. 이러한 병증은 대부분 실증에 속하여 급성이며 병세가 심해지는 특징을 지니고 있고, 항상 發熱, 惡寒, 喘嗽 등의 증상을 동반하며 肺의 문제로 발생되는 경우가 많다. 그는 ‘凡病濕者多自熱生’이라 인식하여 치료에 淸熱을 중시하였다.

『선명론방』에서 ‘水腫’과 ‘小便不利’를 치료하는 처방은 기본적으로 두 부류로 나누어져 있다.

하나는 苦寒淸熱한 ‘三花神佑丸’⁸¹⁾, ‘雄黃神金散’⁸²⁾, ‘萬勝散’⁸³⁾, ‘牽牛丸’⁸⁴⁾ 등이며, 처방은 大黃, 芫花, 甘遂, 大戟, 牽牛, 巴豆와 같은 峻下逐水劑로 구성되어 있다.

또 다른 부류로는 攻補兼施하는 ‘葶藶木香散’⁸⁵⁾, ‘白朮木香散’⁸⁶⁾, ‘茯苓散’⁸⁷⁾ 등과 같은 것이다. 처방은 葶藶, 豬苓, 木通, 澤瀉, 滑石과 같은 利水劑로 구성되어 있다. 두 부류에는 비록 峻緩의 차이가 있지만 모두 淸熱利水의 방법으로 치료하고 있다.

『소문』에서 최초로 “去苑陳莖”⁸⁸⁾라는 ‘수종’의 처방이 제창된 이후 점차 ‘健脾’, ‘宣肺’, ‘補腎’, ‘溫陽’ 등의 여러 가지 치료법이 보충되어 ‘수종’의 처방에 발전이 있게 되었다. 다만 攻補의 문제에 있어 역대 의가들 사이에 논쟁이 있었으니, ‘攻’을 주장하는 학파가 있는가 하면, ‘攻’을 고집하지 않고 ‘攻補’를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정할 것을 주장하는 학파도 있었다. 유씨는 ‘峻攻’의 처방이 많다. 그가 ‘수종’의 사례를 든 것은 대부분 외감 열사에서 기인하여 新病, 急病의 경우이거

77) 江瓏 외1 人編：『名醫類案』『癲狂心疾』，中國中醫藥出版社，1996，pp. 171-172.
78) 尤怡：『金匱翼』『癲狂』『尤在涇醫學全書』，中國中醫藥出版社，1999，p. 238.
79) 前掲書：『黃帝素問宣明論方』『水濕門·水濕總論』，p. 77.
80) 上掲書：『水濕門·水濕總論』，p. 77.

81) 上掲書：『水濕門·藥證方』，p. 77.
82) 上掲書：『水濕門·藥證方』，p. 78.
83) 上掲書：『水濕門·藥證方』，p. 78.
84) 上掲書：『水濕門·藥證方』，p. 78.
85) 上掲書：『水濕門·藥證方』，p. 77.
86) 上掲書：『水濕門·藥證方』，p. 77.
87) 上掲書：『水濕門·藥證方』，p. 78.
88) 『黃帝內經·素問』『湯液醴醢論』

나 혹은 正實, 邪實에서 기인한 것이므로 清熱시키는 峻劑를 사용하면 상응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유씨는 正虛, 邪實에서 기인한 경우에 대해서 “若小便不得通利而反轉泄者, 此乃濕熱痞悶極熱而攻之不開, 是能反爲注泄, 此正氣已衰而多難救也, 慎不可攻之.”⁸⁹⁾라고 하여 조심할 것을 당부했다.

4) 利氣散鬱로 痞滿急痛을 치료

유씨는 『소문현기원병식』에서 ‘堅痞腹滿急痛’의 증상을 “寒主拘縮, 故急痛也. 寒極則血脈凝泣, 反兼土化制之, 故堅痞而腹滿也. 或熱鬱于內, 而腹滿堅結痛者, 不可言爲寒也.”⁹⁰⁾라 하여 구분하여 서술하였다. 그는 주로 心腹疼痛의 實證에 대해 논술하고 있는데, 병인은 ‘寒凝氣阻’와 氣血凝滯하여 ‘熱鬱于內’한 경우에 便尿結滯하는 증상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이는 寒熱을 막론하고 모두 佛鬱로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痛則不通, 不通則痛’에 관하여 『소문』에는 “寒氣入經而稽遲, 泣而不行, 客于脈外則血少, 客于脈中則氣不通, 故卒然而痛.”⁹¹⁾이라 한 것을 바탕으로 그는 氣血이 閉阻不通하는 것이 堅痞腹滿急痛의 주요한 병리기전이라고 인식하여 치료에 있어도 ‘通鬱利氣法’을 위주로 하였다.

寒에 치우쳐 나타나는 心胸滿悶, 脇肋疼痛, 不思飲食의 증상에 관하여, 유씨는 ‘導氣丸’⁹²⁾을 사용하였다.

熱에 치우쳐 나타나는 口燥舌乾, 咽喉不利, 胸脇痞滿, 心腹痛悶, 小便赤澀, 大便結滯, 風氣佛鬱 등의 증상에 관하여, 유씨는 ‘和中丸’⁹³⁾을 사용하

였다.

또한 일체의 心腹卒暴의 疼痛이나 胸中不利의 증상에 관하여, 유씨는 ‘導滯定功丸’을 사용하였다.⁹⁴⁾

5) 雜病의 治療經驗

유씨는 雜病 연구를 매우 중시하였는데, 특히 『內經』의 잡병이론 연구를 중시하였다. 『素問』, 『靈樞』에는 雜病에 관하여 수많은 논술이 있지만 치료방약에는 단지 湯液醪醴, 生鐵落飲, 左角發酒, 澤瀉湯, 鷄矢醴, 薤薹湯, 馬膏膏法, 烏鰂骨丸, 豕膏, 半夏湯, 綿布熨法 등 12방만 기록되어 있고 대부분의 잡병에는 방약치료가 없는 것이 커다란 결점이다. 이에 유씨는 다년간 스스로의 임상경험을 근거하여 『素問』에 있는 61종의 잡병에 대하여 치료방약을 일일이 제시하여 『內經』의 잡병이론과 임상을 긴밀하게 결합시켰다.

『宣明論方』권1과 권2에서 『內經』의 煎厥, 薄厥, 飧泄, 臌脹, 風消, 心掣, 風厥, 結陽, 厥疝, 結陰, 解休, 胃疽, 蠱病, 瘦病, 勞風, 痺氣, 骨痺, 肉苛, 肺消, 涌水, 膈消, 口糜, 疔瘻, 食休, 鼻淵, 衄衄, 鼓脹, 血枯, 伏梁, 瘕俳, 厥逆, 風成寒熱, 風成熱中, 風成寒中, 腦風, 首風, 漏風, 胃風, 行痺, 痛痺, 着痺, 周痺, 胞痺, 腸痺, 熱痺, 白淫, 胃脘痛, 陽厥, 懸積, 疹筋, 厥逆頭痛, 臈痺, 濡瀉, 鶩瀉, 三焦約, 胃寒腸熱, 胃熱腸寒, 控舉, 陰疝, 諸痺, 心疝 등에 대한 치료방약을 기록하였고 또한 치료방약 앞에 이러한 병증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예컨대 結陽證을 논할 때에 먼저 “結陽證 主四腫 四肢腫 熱勝則腫 四肢者諸陽之本 陽結者 故不得行于陰脈 陰脈不行故留結也”⁹⁵⁾라 하였다. 『소문』

정도로 환약을 만든다. 매일 20환씩 生薑湯으로 세 번 복용한다.”

94) 上掲書: 『積聚門·藥證方』, p. 74.

“大椒, 木香 各一錢, 蠟梢 三錢, 巴豆 8丸을 사용한다. 앞의 세 가지 약물은 먼저 분말로 갈고 巴豆霜을 후에 두어서 고루 갈고 醋麥粥丸은 녹두 크기로 朱砂를 밖에 씌운다. 매번 5환-10환 정도 淡한 醋湯으로 복용한다.”

89) 上掲書: 『水濕門·藥證方』, p. 77. ‘葶藶木香散’

90) 前掲書: 『素問玄機原病式』 『寒類』, p. 26.

91) 『黃帝內經·素問』 『舉痛論』

92) 前掲書: 『黃帝素問宣明論方』 『積聚門·藥證方』, p. 75.
“薑黃, 香附 各36g, 砂仁, 甘草, 莪朮 各18g, 丁皮, 松香, 木香, 荊三稜 各9g, 白檀香, 藿香 各4.5g. 모두를 細末로 갈아 綠豆粉 18g을 넣고, 탕으로 달여서 梧桐子 크기로 환약을 만든다. 매일 20-30환을 복용하는데, 잘 씹고 白湯으로 내리는데 식사 후 매일 세 번 먹는다.”

93) 上掲書: 『熱門·熱總論』, p. 64.

“牽牛18g, 肉桂3g, 大黃, 陳皮, 黃芩, 茴香 各4.5g, 木香 3g, 滑石18g. 모두 분말로 갈아서 물을 부어 작은 콩알

에서 단지 “結陽者 腫四肢”⁹⁶⁾라 하여 매우 간결하게 논술되어 있다. 유씨는 이를 더욱 천발하여 熱이 諸陽을 勝하여 怫鬱해져 행하지 못하면 四肢에 부종이 나타나기 때문에 ‘犀角湯’⁹⁷⁾으로 주치할 것을 제시하였다. 방은 犀角, 玄蔘, 連翹, 柴胡 각 半兩, 升麻, 木通 각 3錢, 沈香, 射干, 甘草 각 1分, 芒硝, 麥門冬 각 1兩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서 犀角, 玄蔘, 連翹, 芒硝, 升麻, 柴胡 등 淸한 약물은 모두 淸熱解毒시키는 것이고, 沈香은 降氣하고, 芒硝는 瀉下하고, 升麻, 柴胡는 升散하며 또한 鬱熱을 행하게 하여 陽氣가 통하면 結腫이 스스로 소멸한다.

또한 膈消證은 『소문』에서 단지 “心移熱于肺 傳爲膈消”⁹⁸⁾라 기재되어 있으나, 유씨는 “心移熱于肺, 名曰膈消. 二者心膈有熱, 久則引飲以消渴耳”⁹⁹⁾라 하였다. 이 병은 본래 上焦에 熱이 있어 오래되면 熱이 化하여 燥를 생하고 燥熱이 消渴로 되는 즉 上消證이다. 따라서 ‘麥門冬飲子’¹⁰⁰⁾로 益氣養陰하고 生津止渴한다. 방에서 麥門冬, 瓜蒌, 知母, 生地, 葛根 등으로 養陰生津하여 上焦의 心肺를 潤하고 다시 人蔘을 가하여 益氣生津하여 津액을 회복시켜 燥熱을 없앤다. 茯神, 甘草 또한 淸心寧神시키는 효능이 있다. 이상의 내용들은 모두 上焦를 치료하는 것으로 藥과 證을 부합시켰는데 유씨의 풍부한 임상경험을 충분히 반영한 것이다.

또한 暗痹의 증치에 대해서도 이러한 점을 체현하였다. 『소문』에서는 “內奪而厥, 則爲暗痹, 此腎虛也”¹⁰¹⁾라 하였는데, 유씨는 “內奪而厥, 舌瘖不能言, 二足履不爲用. 腎脈虛弱, 其氣厥不至, 舌不仁. 經云: 暗痹足不廢用, 音聲不出者”¹⁰²⁾라 하여 더욱 자세하게 서술하였다. 즉 暗痹를 腎虛하

여 元氣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리를 쓰지 못하고, 腎脈이 신체 상부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聲音이 나오지 못하는 病機로 인식하였다. 치료는 補腎의 원칙에서 출발하여 ‘地黃飲子’¹⁰³⁾를 創方하였다. 약은 熟地黃, 巴戟, 山茱萸, 石斛, 肉蓯蓉, 附子, 五味子, 官桂, 白茯苓, 麥門冬, 菖蒲, 遠志를 응용하였는데 腎의 陰陽을 通補하여 腎氣를 회복시켜 氣機를 통하게 함으로써 暗痹를 낮게 하였다. ‘地黃飲子’는 후세 많은 의가들이 자주 응용하였는데 劉氏의 임상경험이 실용적임을 알 수 있다.

유완소는 消渴病에 대한 독특한 견해가 있으며, 消渴에 대한 전문 저작인 『三消論』에서 자세하게 밝혔다. 그는 消渴에 세 가지가 있다고 하여 “若飲水多而小便多者, 名曰消渴. 若飲食多而不甚饑, 小便數而消瘦者, 名曰消中. 若渴而飲水不絕, 腿消瘦而小便有脂液者, 名曰腎消”¹⁰⁴⁾라 하였는데, 근세에 消渴을 上消, 中消, 下消 3종으로 나눈 것에 가깝고 上消는 多飲하고, 中消는 多食하고, 下消는 多尿하는 점이 기본적으로 일치한다. 또한 劉氏는 그 병기에 대해서도 상당한 수준의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如此三消者, 其燥熱一也. 但有微甚耳.”¹⁰⁵⁾라 하였으며, 치료할 때 “燥熱毒藥助其強陽, 以伐衰陰”¹⁰⁶⁾하는 것을 ‘虛虛實實之罪’로 보아 반대하였다. 따라서 “補腎水陰寒之虛, 而瀉心火陽熱之實, 除腸胃燥熱之甚, 濟身津液之衰使道路散而不結, 津液生而不枯, 氣血利而不澀, 則病日已矣”¹⁰⁷⁾한다고 주장하고 淸으로 腸胃心 등 장부의 열을 제거하고 腎水의 허를 보충하는 것을 치료의 대법으로 삼아 津액을 생성하고 燥熱을 없애면 消渴은 스스로 물러난다고 보았다. ‘猪肚丸’, ‘葛根丸’이 바로 이러한 치법에 준한 처방이다. ‘猪肚丸’¹⁰⁸⁾은 猪肚, 黃蓮, 栝樓, 麥門冬, 知

95) 上揭書: 『諸證門·結陽證』, p. 49.

96) 『黃帝內經·素問』 『陰陽別論』

97) 前揭書: 『黃帝素問宣明論方』 『諸證門·結陽證』, p. 49.

98) 『黃帝內經·素問』 『氣厥論』

99) 前揭書: 『黃帝素問宣明論方』 『諸證門·膈消證』, p. 51.

100) 上揭書: 『諸證門·膈消證』, p. 51.

101) 『黃帝內經·素問』 『脈解篇』

102) 前揭書: 『黃帝素問宣明論方』 『諸證門·暗痹』, p. 53.

103) 上揭書: 『諸證門·暗痹』, p. 53.

104) 劉完素: 『三消論』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中國中醫藥出版社, 1995, p. 181.

105) 上揭書: 『三消論』, p. 181.

106) 上揭書: 『三消論』, p. 181.

107) 上揭書: 『三消論』, p. 181.

108) 上揭書: 『猪肚丸』, p. 184.

母 5미의 약으로 조성된 것으로 養陰潤燥시키는 약물에 火熱을 瀉하는 黃蓮을 다시 가하여 養陰清熱之劑를 만들었다. ‘葛根丸’¹⁰⁹⁾은 葛根, 栝樓로 養陰生津潤燥하고 다시 煉丹을 가하여 毒熱을 제거하여 소갈을 치료하고, 溫補腎陽하는 附子를 가하여 陽生陰長케 하였는데 소갈을 치료하는 大法를 잃지 않았다.

그는 또한 ‘人蔘白朮散’¹¹⁰⁾을 만들어 養陰潤燥와 清熱瀉火를 하나로 융합시켜 扶正과 祛邪시키는 각각의 측면을 함께 고려하였고 방에서 大黃, 梔子, 連翹, 石膏, 寒水石, 分초, 滑石, 甘草 등으로 清熱瀉火시키고, 栝樓根, 乾葛, 當歸, 芍藥 등으로 養陰潤燥하고, 또한 人蔘, 白朮을 가하여 健脾益氣시키고, 官桂로 溫腎하고, 木香, 藿香으로 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茯苓, 澤瀉 등으로 利濕하여 氣機를 통하게 하면 氣와 陰이 固密해져 燥熱이 제거되어 소갈이 스스로 낫는다. 유완소가 만든 諸方들은 당시의 학술적인 수준의 한계로 養陰法이 아직 완성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부족한 점이 있다. 그러나 소갈의 증치에 대한 인식은 이전의 학술적인 이론을 총괄하고 발전시킨 바가 분명히 있다.

中風에 대하여서도 劉氏의 탁견이 있었다. 劉氏 이전에 中風을 논한 의가들은 대부분 外風이 傷人한다고 인식하였으나 유씨만이 ‘六氣火化’, ‘五志過極皆爲熱甚’한다는 이론을 가지고 『素問』에서 ‘諸暴強直 皆屬于風’¹¹¹⁾의 病機를 승상하여 “所謂中風癱瘓者, 非謂肝木之風實甚而卒中, 亦非外中于風爾. 由乎將息失宜而心火暴甚, 腎水虛衰不能制之, 則陰虛陽實而熱氣佛鬱, 心神昏冒, 筋骨不用, 而卒倒無所知也. 多因喜怒思悲恐之五志, 有所過極而卒中 由五志過極皆爲熱甚故也”¹¹²⁾라 주장하였다. 中風은 丙에서 生하는 것이지 결코 바깥의 風邪에 中한 것이 아니고, 이는 陽盛陰衰, 心火暴盛, 腎水虛衰의 病기로 발생하는 것으로

그 병인은 대부분 情志失調, 五志化火에 기인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논점은 옛 外風 主病의 잘못된 이론을 바로잡은 것으로 이는 中風 病機理論에 있어서 하나의 발전이다. 치료방면에서 유씨는 寒涼한 약으로 鬱熱을 除하고, 結滯를 開하고, 風癱을 산하고, 氣血을 宣通할 것을 주장하고 ‘靈寶丸’¹¹³⁾, ‘三一承氣湯’¹¹⁴⁾, ‘防風通聖散’¹¹⁵⁾ 등을 사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용약 처방을 후세의 것과 비교하면 완비된 것은 아니지만 그 치료대법은 후세에 길을 열어주었다. 葉天士, 張錫純 등이 中風을 치료한 경험은 모두 유완소의 학풍과 일맥상통하고 발양시켰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유씨는 火熱病機를 ‘六氣皆從火化’함을 밝혔으며, ‘五志過極皆爲熱甚’하다고 인식하여 火熱病機를 핵심으로 삼은 일가의 학설을 형성하게 되었다. 따라서 치료에는 辛涼解毒, 養陰退陽, 清熱解毒, 清宣鬱熱할 것을 주장하였다. 劉氏는 外感과 丙傷에 모두 火熱病機를 중시하였지만 특히 六氣化熱하는 병기가 중심이기 때문에 후세에 寒涼派의 대표적인 醫家로 칭하게 되었다.

III. 結論

金元四大家의 태두인 劉完素는 1110년 河北省 河間縣에서 태어나 1200년 90세로 별세할 때까지 『黃帝內經』과 『傷寒論』 연구에 힘을 기울여 『素問玄機原病式』, 『黃帝素問宣明論方』

『素問病機氣宜保命集』, 『傷寒標本心法類萃』, 『傷寒直格論』 등을 저술하였다. 그리고 運氣를 이용한 이론 연구를 통하여 ‘火熱論’을 주장하고 寒涼한 약물을 이용한 치법을 제시함으로써 금원시대 의학에 백가쟁명이 나타나게 된 계기가 되었기에, 論者는 本論의 연구를 통하여 유완소의 方劑學說과 臨床經驗에 관한 내용을 다음과 요약 정리하였다.

109) 上揭書：『葛根丸』, p. 184.

110) 上揭書：『人蔘白朮散』, p. 184.

111) 『黃帝內經·素問』 『至真要大論』

112) 前揭書：『素問玄機原病式』 『六氣爲病·火類』, p. 22.

113) 前揭書：『黃帝素問宣明方論』 『風門·藥證方』, p. 60.

114) 上揭書：『傷寒門·傷寒方』, p. 68.

115) 上揭書：『風門·藥證方』, p. 59.

1. 方劑學說

1) 『황제소문선명론방』에는 그가 운용한 『상한론』과 여러 名家와 그의 제자들이 운용한 방제가 모두 366방이 포함되어 있는데, 대부분辛苦한 寒藥을 이용하여 鬱結을 開通시키고 燥濕除熱할 것을 주장하였다. 실제로 寒涼한 藥물을 사용함에 있어 用量과 用法에 신중을 가하였으며, 藥물의 作用을 잘 이해하여 脾胃를 고려하기도 하였다.

2) 『常服保養』은 그가 거주한 중국의 북방은 기후가 건조하며, 사람들의 습성이 강하고 거친 음식을 많이 먹어 腸胃가 秘燥한 경향이 있다. 이러한 생활환경 아래에서 辛苦하고 寒한 藥을 상용하여 結滯된 것을 開通시키고 潤燥시키는 것은 매우 합리적이고 필요한 것으로 이른바 『異方法宜』에 입각한 保養을 중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황제소문선명론방』의 366方 가운데 散劑 126방과 湯劑 87방이 있는데, 그 중에 18방만이 진정으로 湯劑라 할 수 있고 그 나머지는 煮散에 가깝다. 전체적으로 보면 대부분 成方과 成藥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하간 藥의 用量과 用法은 또한 惠民局의 영향을 상당히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황제소문선명론방』 등에서 열거된 주요 방제로는 『防風通聖散』, 『三花神佑丸』, 『雙解散』, 『三一承氣湯』, 『大金花丸』, 『益元散』, 『大建中湯』, 『當歸龍膽丸』, 『秘方茶酒調散』, 『桂苓甘露散』, 『川芎石膏湯』, 『全聖散』, 『地榆湯』, 『人蔘散』, 『芍藥湯』, 『內疏黃連湯』, 『神芎丸』, 『倒換散』 등이 있다.

2. 臨床經驗

유씨는 풍부한 치료 경험을 가지고 있었지만, 유감스럽게도 단 한 부의 醫案 저작도 전해지지 않는다. 그는 많은 질병의 치료에 대해 독창성 있는 견해를 보이고 있는데, 모두 『소문현기원병식』 등의 이론 저작 특히 『황제소문선명론방』 속에 흩어져 나타난다. 그의 독창적인 견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瀉火降逆하여 吐衄을 다스리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는 血證의 원인을 대부분 熱로 인식하여 止血의 목적으로 『生地黃散』등의 寒涼之劑를 많이 사용하였고, 出血을 上下로 구분하여 心火, 胃熱, 火炎于上 등에서 기인한 上竅出血은 『清火降逆』의 처방을 사용하여 다스렸다.

2) 清胃熱의 방법으로 癲狂을 치료하였다. 그가 언급한 『癲狂』은 외감 열병의 과정에서 陽明이나 上焦에 열이 지나쳐 발생하는 정신 질환이며, 『諸躁狂越, 皆屬于火』의 병리적 기전은 열이 陽明에 겹친 것으로 인식하여 『梔子湯』, 『涼膈散』, 『大承氣湯』등을 응용하여 胃熱을 제거하였다.

3) 清熱利水로 浮腫을 치료하였다. 유씨는 『선명론방』에서 『水腫』의 사례를 든 것은 대다수 외감 열사에서 기인하여 新病, 急病의 경우이거나 혹은 正實, 邪實에서 기인한 것이므로 『清熱利水』시키는 峻劑를 사용하면 효과를 얻을 것이라 주장하였다.

4) 利氣散鬱을 통하여 痞滿急痛을 치료하였다. 그는 氣血이 閉阻不通하여 堅痞腹滿急痛하는 경우에 『逆氣丸』, 『和中丸』, 『導滯定功丸』등을 사용하여 『通鬱利氣法』의 처방으로 다스렸다.

5) 雜病의 治療經驗에 있어서 유씨는 『내경』의 雜病理論 연구를 중시하여 『소문』의 61種의 雜病에 대하여 『선명론방』에서 처방을 일일이 제시하였는데, 이를테면 結陽證에 『犀角湯』을 膈消證에 『麥門冬飲子』를 사용하거나 暗痲에 『地黃飲子』를 創方한 경우이다. 특히 消渴病에 관하여 소갈 전문 저작인 『三消論』에서 上消에 해당하는 消渴, 中消에 해당하는 消中, 下消에 해당하는 腎消로 분류하여 『豬肚丸』, 『葛根丸』, 『人蔘白朮散』등을 이용하여 證治하였다. 또한 劉氏 이전에 中風을 논한 醫家들은 대부분 外風이 傷人한다고 인식하였으나, 그는 中風이 丙에서 生하는 것이지 결코 바깥의 風邪에 中한 것이 아니고, 이는 陽盛陰衰, 心火暴盛, 腎水虛衰의 病機로 발생하는 것으로 그 病因은 대부분

情志失調, 五志化火에 기인하므로, 치료에 있어 寒涼한 藥으로 鬱熱을 除하고, 結滯를 開하고, 風癱을 散하고, 氣血을 宣通할 것을 주장하고 ‘靈寶丹’, ‘三一承氣湯’, ‘防風通聖散’ 등을 사용하였다.

『黃帝內經』이 성립 이후 약 1200여년이 지나서 새로운 의학의 場을 제공한 유씨의 학술 사상은 또한 800여년이 지난 오늘날의 임상에서도 많이 응용되고 있다. 熱病은 河間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는 옛사람들의 말을 본받아 오늘날 다양한 유행성 및 발열성 질환에 대해 온병학과 더불어 대응할 수 있는 수단으로 탐색되고 啓發되어질 것을 기대한다.

IV. 參考文獻

- 『黃帝內經·素問』
- 『四庫全書總目』: 中華書局, 1964.
- 劉完素: 『素問玄機原病式』『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中國中醫學出版社, 1995.
- 劉完素: 『素問病機氣宜保命集』『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中國中醫學出版社, 1995.
- 劉完素: 『黃帝素問宣明論方』『金元四大家醫學全書』上,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2.
- 劉完素: 『三消論』『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中國中醫學出版社, 1995.
- 朱震亨: 『局方發揮』『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中國中醫藥出版社, 1977.
- 王好古: 『此事難知』『中國醫學大成續編』卷五, 岳麓書社,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0.
- 張介賓: 『景岳全書』『張景岳醫學全書』,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 張介賓: 『景岳全書·新方八陣』『張景岳醫學全書』,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 吳崑: 『醫方考』『吳崑醫學全書』,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 尤怡: 『金匱翼』『尤在涇醫學全書』,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 王綸: 『明醫雜著』, 江蘇科學技術出版社, 1981.
- 陸九芝: 『世補齋醫書』『陸懋修醫學全書』,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 江瓘 외1人編: 『名醫類案』,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 繆希雍: 『先醒齋醫學廣筆記』『繆希雍醫學全書』,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 唐宗海: 『血證論』『唐容川醫學全書』,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 謝利恒: 『中國醫學源流論』, 澄齋社排印本三版(中國自然科學史研究所圖書館所藏), 1936.
- 嚴世藝 외22人: 『中國醫籍通考』, 上海中醫藥出版社, 1990.
- 徐岩春 외1人: 『倡火熱論的劉完素』, 中國科學技術出版社, 1989.
- 劉祖貽 외123人: 『中國歷代名醫名述』, 中國古籍出版社, 2002.
- 劉星 외33人: 『中醫各家學說』, 科學出版社, 2001.
- 嚴世藝 외8人: 『中醫各家學說』, 中國中醫藥出版社, 2003.
- 虛健鵬 외1人: 『中國古代名醫點評』, 中國醫藥科學出版社, 2000.